

다음달 출간이 확실시 되는 책들을 미리 수집합니다. 출판사에 따라선 편집 및 영업상의 이유로 공개하길 꺼려하는 경우도 없진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계의 물밑 움직임을 파악하고 출간 정보를 조금이라도 빨리 독자들에게 알린다는 의 미에서 이는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편집자 주>

11월 ~ 12월 인문 · 과학 · 실용 등 다양한 장르 선봬

1. 에쿠리브르

《나의 파리, 온몸으로 즐기기》

울프 다니엘손 지음 | 이미옥 옮김 | 박진희 감수

블랙홀, 백색왜성, 천구의 음악과 원자핵의 비밀, 괴테의 별들과 슈뢰딩거의 고양이. 울프 다니엘손은 이 책에서우주의 가장 내부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류는 어떻게 수세기 동안 우리의 우주가 뭔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는지를 탁월한 유머와 상상력을 동원해 간략하면서도 매력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예술의 의미》 허버트 리드 지음 | 임산 옮김

‘현대의 고전’이 된 허버트 리드의 예술론! 영국의 저명한 미술비평가이자 시인인 저자가 간결하지만 심오한 문제로 예술의 본질과 원리를 탐구한 《예술의 의미》를 새로운 번역과 편집으로 다시 선보인다. 철학적이면서 직관적인 리드의 예술관은 당대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후 오랜 세월 예술 감상의 중요한 지침이 되어주었다.

2. 황금부엉이

《아메리칸 버티고》 베르나르 앙리 레비 지음 | 김병욱 옮김

프랑스의 대표 철학자로 평가받는 베르나르 앙리 레비의 미국 탐방기. 철학자/저널리스트로서의 객관적이고 예리한 시각과 풍부한 지식, 유머와 속도감이 묻어나는 촌철살인의 필력을 바탕으로 21세기 미국 사회의 모든 부분을 탐사한다. 출간과 동시에 미국과 프랑스의 베스트셀러 차트를 석권한 2006년 최고의 화제작.

《심장은 말한다》 미미 구아르네리 지음 | 박윤정 옮김

미국의 저명한 심장전문의를인 저자가 현대의학의 한계를 절감, 심신상관의학으로 대표되는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새롭게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들려준다. 돌연사의 위험에 떨고 있는 삼사십대 직장 남성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중년 여성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책.

3. 이큰이침

《시친의 지구연대기 2 - 하늘로 오르는 계단 · 2(가제)》 제카리아 시친 지음 | 이근영 옮김 | 각 권 250쪽 내외

전작에서 태양계에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행성이 있다는 것을 고대의 신화와 기록들을 통해 입증해 보인 시친은, 이번 지구 연대기 의 두 번째 작품에서 대홍수 이후에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추적한다.

공상과학 소설처럼 이것이 과연 실제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만한 내용들이지만, 고고학적 발견과 고대의 문서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인류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영원한 삶이라는 희망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밝혀낸다.

4. 아트북스

《그림이 된 아내》 정필주 지음

한국 근현대 화가의 아내들은 알려진 대로 ‘내조자’ 역할만 했을까? 이 책은 화가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우리 화가의 아내들의 삶과 이들이 한국미술계에 기여한 바를 낱알이 파헤친다. 전쟁을 비롯한 인프라의 부재 등을 이겨내며 현실과 예술의 경계에서 살았던 이들. 실존해 있는 아내들의 인터뷰 등을 통한 정보가 소름 돋을 정도로 생생하다.

《그림으로 읽는 근대(가제)》 이택광 지음

그림은 시대를 향한 창이자 이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인상파 와 영국의 라파엘전파를 중심으로, 그림에 나타난 근대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본다. 방대한 인문학 지식을 활발한 상상력과 버무려 그림 읽기를 풍성하게 하는 이 책은 그림 속에 꿈틀대는 또 하나의 세계를 발견하게 한다.

5. 열린책들

《에보니 타워》 존 파울즈 지음 | 정영문 옮김

《프랑스 중위의 여자》, 《만티사》의 작가 존 파울즈의 중단편 소설집. 중세적 연애담에서부터, 중년 남성의 실종 사건, 여름날 어느 가족의 피크닉 이야기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풍부한 기법들로 그려내고 있다.

《번역의 스캔들》(가제) 로렌스 베누티 지음 | 임호경 옮김

초기 교회의 성서 번역에서 현대의 국제적 베스트셀러까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산물로서의 번역이라는 행위와 그를 둘러싼 역학 관계를 분석한 책. 번역이 이루어지는 조건들과 그 결과가 가지는 영향력들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번역의 기능과 의미를 밝힌다.

6. 샘터

《오래된 웃음의 숲을 노닐다》 류정월 지음

조선시대에 한문으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들을 통틀어 '옛날 우스개' 라고 부르며 우스개를 학문적으로 접근해 소개한다. 젊은 필자답게 과감히 해설을 자처한 온갖 음담에 관한 우스개는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우스개 '해설' 에 짜릿하고 은밀한 독서의 즐거움을 더한다.

문을 가지게 된 슈헤이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가치와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

《아빠, 회사가 재밌어?》(가제) 다카하시 아키라 지음 | 홍성민 옮김

우화형 자기 계발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직장인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이다. 자신의 가치와 당위성에 대해 의

《행복, 그 '뽀뽀'의 날개》 조광호 글, 그림

'화가 신부', 로 유명한 조광호 신부의 두 번째 에세이집이다. 소소한 일상과 아련한 추억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들이 인생의 기쁨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저자의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는 그림은 다정(多情)도 병(病)인 현대인들에게 그 저바라만 봐도 희망과 위로가 되어준다.

7. 민음사

《흥미로운 20세기 : 흡스봄 자서전》 에릭 흡스봄 지음 | 이희재 옮김

1917년에 제3세계 이집트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지만 나치를 피해 영국으로 망명한 유대인, 《혁명의 시대》 《제국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 등 수많은 저술을 남기면서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저자, 그러나 공산당이 되 늘 맑시스트 이단아였던 20세기 최고의 역사가 흡스봄이 20세기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걸작.

《시장의 역사》 존 맥밀런 지음 | 이진수 옮김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과의 맥밀런 교수가 진짜 시장에 대해 말한다. 사막의 낙타 시장부터 네덜란드 꽃시장에 이르기까지 시장의 원리를 알기 쉽게 파헤친다.

8.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국어 체언의 음변화 연구》 이상익 지음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우리말을 기록하기 시작한 15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의 문헌 자료를 주대상으로, 또 현대어까지 참조하여 국어의 여러 음운 변화가 어떻게 확산되어 왔는지를 단어별로 검토하였다. 특히 어휘 확산과 단어 사용빈도 간의 관계를 좀더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한국기업 해외직접투자전략의 변천》 이동기 지음

한국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실적과 특성을 역사적, 동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투자기업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또한 국가적 차원의 해외투자정책에 대한 함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9. 길

《인물로 보는 서양고대사》 허승일 외 지음

이 책은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 공화정, 로마 제정에 이르기까지 서양고대사에 뛰어난 족적을 남긴 인물 39명에 대해 각 전공자들이 일반 독자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쓴 입문서이다. 그들을 통해 서양고대사 전개과정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각 시기 앞에 간략한 약사(略史)를 두어 시대사를 개괄해주고 있다.

《몽타이유》 엠마누엘 르루아 라뒤리 지음 | 유희수 옮김

이 책은 20세기 서양역사학이 거둔 최대 역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책으로, 프랑스에서 출간된 이후 현재까지 약 20만 부가 넘게 판매된 고전적 명저이다. 13세기 피레네 산맥 근처 프랑스 산악마을인 '몽타이유' 에서 벌어졌던 이단재판에 관한 기록을 저자가 꼼꼼히 연구, 복원하여 소설처럼 엮어낸 이 책은 저자에게 대중적인 명성을 안겨주었다.